

SB리모티브, 델파이에 2차전지 공급

하이브리드 상용차용 10년간 단독으로 ... 울산 전용공장에서 생산

삼성SDI와 독일 Bosch의 합작기업 SB리모티브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미국 Delphi에 하이브리드 상용차용 리튬이온전지를 10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12월8일 삼성SDI에 따르면, SB리모티브는 2010년 시제품 공급을 시작으로 2012-21년 동안 델파이에 하이브리드 상용차용 리튬이온전지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트럭, 버스 등 상용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전지의 수명과 출력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분야로 Delphi는 공급받은 전지를 배터리 팩과 동력시스템에 적용해 상용차용 변속기,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만드는 글로벌기업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SB리모티브는 삼성SDI 울산사업장에 건설하고 있는 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전용공장을 통해 전지를 공급하고 7월 인수한 미국 Cobasys를 통해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8월에는 독일 BMW의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의 단독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영우 SB리모티브 대표는 “SB리모티브가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것 외에 하이브리드 상용차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08>